

한나 아렌트와 외로움, 그리고 '대화형' 인공지능*

김만권**

- | | |
|--------------------------------|-------------------------------------|
| I. 들어가며: 외로움이 '디지털'을 만날 때 | III. 외로운 시대의 '대화형' 인공지능 |
| II. 한나 아렌트와 외로움 | 1. 외로움의 확산과 1인 가구의 확장 |
| 1. 외로움의 '짧은' 역사: 인간은 '원래' 외롭다? | 2. 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 데이터와 대화할 수 있다면 |
| 2. 왜 외로움이 위험한가 | IV. 노동 사회와 '론리' 사피엔스가 된 디지털 인류 |
| | V. 나가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 |

국문초록

이 논문은 21세기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외로움과 대화형 인공지능의 도래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외로움(loneliness) 개념에 주목한다. 이런 목적과 이론적 틀 아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한나 아렌트의 외로움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둘째, 외로움의 시대에 왜 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이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기술의 형식이 인간의 달라진 삶의 방식과 맞물릴 때 생겨

날 수 있는 변화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인류인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ce)가 외로운 인류인 '론리 사피엔스'(Lonely Sapience)로 변해가는 상황을 진단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국문 키워드: 한나 아렌트, 외로움, 대화형 인공지능, 포노 사피엔스, 론리 사피엔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5315)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I. 들어가며: 외로움이 ‘디지털’을 만날 때

2018년 1월,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트레이시 크라우치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을 외로움을 전담하는 장관(minister of loneliness)으로 겸직 임명했다는 보도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¹ 세계 최초로 정부가 외로움을 전담하는 관료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영국 정부의 행보는 2017년 영국의 하원의원 조 콕스가 초당적으로 설립한 ‘조 콕스 외로움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른 즉각적 조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Jo Cox Loneliness, 2017), 영국인 중 9백만 명이 외로움에 자주 혹은 항상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행동(Action for Children) 서비스를 이용하는 17-25세 사이의 젊은이 중 43%가 외로움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50%는 매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부모 중 52%가 외로움 관련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3백 6만 명은 텔레비전이 가장 중요한 친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살피고 있는 보호자 10명 중 8명이 보살핌의 대가로 외롭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더 심각하게는 10명 중 1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 누구에게도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영국 의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 의사들 4명 중 3명은 매일 1명에서 5명 사이의 환자들이 외로움을 이유로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의사 10명 중 1명은 외로움을 호소하는 환자를 매일 6명에서 10명 사이를 면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로움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은 여러 측면에서 사람들과 공동체에 해롭다. 외로움이 만드는 약한 사회적 고리는 하루에 담배 열다섯 개

1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을 임명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실제로 영국에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minister는 차관보급 직무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선 편의상 보도된 바에 따라 ‘장관’으로 쓴다.

비를 피는 만큼 건강에도 해롭다. 영국의 고용주들은 외로움 때문에 매년 2.5억 파운드(약 4000억 원)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절된 공동체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비용이 32억 파운드(약 5조 2천억 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외로움이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영국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선 코로나 이전에도 성인 5명 중 3명이 외롭다고 여기고 있었고, 밀레니얼 세대는 5명 중 1명 이상이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응답했다. 독일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들이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극단적이지만 일본에선 외로움을 피해 감옥을 선택하는 노인들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허츠 2021, 15-17).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8년 한국리서치의 '외로움'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26%가량이 자주 외롭거나 항상 외롭다고 답하여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했고, 20대의 경우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한 경우가 10명 중 4명에 이르렀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노리나 허츠(Noreena Hertz)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외로운 세기'(the lonely century)라 부른다(허츠 2021).

한편 21세기는 외로움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비약적인 기술 발전의 시대이기도 하다. 20세기 중반에 등장하여 후반부터 급격히 성장한 디지털 기술은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여주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²은 반 세기가량 맞아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구글 CEO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최근 인터뷰에서 무어의 법칙이 4배로 가속화되었다고 밝혔다(Pichai 2023).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기술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형식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11월

2 인텔의 공동창업자인 고든 무어(Gordon Moore)가 1965년에 예측한 것으로, 집적회로의 연산능력이 1년마다 2배씩 향상된다는 법칙이다(Moore 1965). 1975년 무어는 이 주기를 2년으로 수정했다. 이 예측이 반세기 이상 맞아들어가며 '무어의 법칙'이라 불리고 있다.

30일 공개된 ‘챗지피티’(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다. 챗지피티는 ‘오픈 에이아이’(Open AI)에서 개발한 자연어 생성 모델 인공지능으로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등장한 ‘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다시 말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논문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외로움과 대화형 인공지능의 도래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나 아렌트의 ‘외로움’ 개념에 주목한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51)에서 전체주의를 구성하는 주요요소로서 ‘외로움’의 문제에 일찍이 주목했다. 아렌트의 외로움에 대한 정의와 분석은 오늘날 외로움이 만들고 있는 사회정치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이론적 틀이 될 것이다.

이런 목적과 이론적 틀 아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로움의 철학적·사회적·정치적 의미를 한나 아렌트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둘째, 외로움의 시대에 왜 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이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여기에선 기술의 형식이 우리의 생활 방식의 변화(특히 1인 가구의 확장)와 맞물릴 때 생겨날 수 있는 효과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외로운 인류, ‘론리 사피엔스’(Lonely Sapience)라는 개념을 던지며 디지털 인류에게 적합한 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I. 한나 아렌트와 외로움

이 절에서는 한나 아렌트가 정의한 외로움의 개념을 통해 외로움이 무엇인지, 왜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정치적 문제로 확장되는지 살펴본다. 아렌트는 외로움이 '자아와 타자 그리고 세계의 동시적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하며,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외로움에 빠져드는 일이 20세기 유럽에서 처음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더하여 이런 외로움에 빠진 집단을 '대중'(mass)이라 부르며 이들이 전체주의를 지지했다고 강조한다. 이 절에서는 21세기 우파 포퓰리즘에 대한 여러 연구가 아렌트의 주장과 여러 측면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1. 외로움의 '짧은' 역사: 인간은 '원래' 외롭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라고 말한다. 이런 표현은 외로움이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영어권에서 '외롭다'(lonely)이란 말은 16세기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외롭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낸 이가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이기 때문이다. 'lonely'라는 표현은 셰익스피어가 1605년에서 1608년 사이에 쓴 『코리올레이너스』(Coriolanus)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에서 코리올레이너스는 로마의 탁월한 영웅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두려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코리올레이너스를 두고 4막 1장(ACT 4, SC.1)에서 '외로운 용'(lonely dragon)으로 묘사한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주변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 이것이 셰익스피어가 묘사한 외로움이었다.

시대적 맥락에서 볼 때, 셰익스피어가 묘사한 외로움은 ‘홀로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홀로 있음을 뜻하는 표현은 ‘oneliness’였다. 당시 ‘oneliness’, ‘홀로됨’은 어떤 부정적 의미도 담고 있지 않았는데 이때만 해도 중세의 영향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홀로됨은 오히려 신을 더 가깝게 느끼고 마주하는 기회였다. 신이 존재하는 한 홀로됨은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운 기회일 수 있었다(머시 2020, 93-94). 그렇기에 외롭다는 것과 홀로된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였다.

홀로됨과 달리 『코리올레이너스』에서부터 볼 수 있었던 외로움은 부정적 의미를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려움에 떨면서도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한 채 외로운 용이 된 코리올레이너스는 “자신만이 로마 공화정을 대표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만들어내면서 뒤틀린 개인주의”에 이르고 만다(권동욱 2015, 2).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이 용어를 썼을 때만 해도 사회적으로 볼 때 외로움은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 17세기 문헌에선 ‘외롭다’는 표현을 아주 드물게 볼 수 있었는데, 1674년 엔 박물학자 존 레이(John Ray)가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 영어용어 모음』(A Collection of English Words not generally used)에 포함해 놓을 정도였다(Worsley, 2018).

그럼에도 셰익스피어가 경고한 이런 ‘외로움’에 대해 영국 사회가 서서히 주목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 사례가 존 밀턴(John Milton)의 『실낙원』(*Paradise Lost*, 1667)이다. 『실낙원』은 영국 문학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첫 작품으로 평가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에덴의 동산에 이브를 유혹하러 가는 사탄이다(머시 2020, 94). 외로움을 인간이 아닌 (타락한 천사로써) 사탄과 연결한 것으로, 밀턴은 지옥과 에덴동산 사이에 있는 끝없는 황야를 홀로 건너는 사탄의 모습을 “외로운 발걸음”(lonely steps)이란 표현으로 그려냈다(Milton 1667, Book2 825).

정치철학사에서 이 외로움에 가장 먼저 주목한 이는 한나 아렌트이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의 마지막 장 끝부분에서 전체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외로움에 주목한다. 하지만 제니퍼 가프니(Jeniffer Gaffney)가 지적하듯, '외로움'은 아렌트의 저작 전반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아렌트의 사상이 태동한 기반인데도 연구자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³ 아렌트의 시민권에 관한 관심, 자유로운 공론영역의 참여에 강조, 공동체에 속할 권리 등 중요한 주제들이 외로움과 직결되는 데도 말이다(Gaffney 2016, 5).

아렌트에 따르면(그리고 일반적인 역사적 분석에 따라도), 유럽에서 외로움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계기는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산업화와 이에 따라 이어진 도시화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외로움이 유럽에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집단적인 문제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에 이은 20세기 초반이었다. 그 주된 이유는 18세기 말부터 시작해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15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인구 성장에 있었다(Arendt 1951, 311). 예를 들어 19세기 동안 유럽 전체인구는 1억 8천만에서 3억 9천만이 되었다. 100년 사이에 2억 1천만 명이 증가하여 거의 2.5배로 불어났다. 그사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다(Zinkina 2017, 184).

문제는 늘어난 인구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실업 위기가 초래되며 수많은 사람이 인간의 가치에 대한 경멸 속에 '과잉화된' 존재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이 세계에서 '있을 자리를 잃고'(uprooted), 마침내 '불필요한'(superfluous)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에 휩싸였다. 아렌트는 유럽에서 대규모의 사람이 경험한 이 느낌을 '뿌리뽑힘'(uprootedness)과 '쓸모없음'(superfluosness)이라 정의하며(Arendt 1951, 311, 475), 이를 "유럽에서 있었던 온전히 새로운 현상"(an entirely new phenomenon in Europe)이라 강조한다(Arendt 1951, 311). 좀 더 구체적

3 아렌트 연구에서 외로움에 대한 개념은 최근에 조명되기 시작했는데, Gaffney (2016), Schaap (2021), Shuster (2012) 등의 연구가 주목할만하다.

으로 아렌트는 ‘뿌리뽑힘’은 “타자들이 인정하고 보장하는 장소가 이 세계에 없다는 의미”이며, ‘쓸모없음’은 “이 세계에 속할 곳이 없다”는 의미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뿌리뽑힘’을 ‘쓸모없음’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한다(Arendt 1951, 475).

무엇보다 이러한 ‘뿌리뽑힘’과 ‘쓸모없음’의 느낌은 20세기에서 대규모의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한 ‘외로움’의 경험으로 이어졌다. 아렌트는 이렇게 동시에 외로워진 대규모 집단을 ‘대중’(mass)이라 부르며, “대중들은 고도로 원자화된 사회의 분열에서 자라난다”고 말한다. 더하여 ‘대중으로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야만과 퇴보가 아니라 고립(isolation)과 정상적인 사회관계의 결여”로 본다(Arendt 1951, 317).

여기서 아렌트가 대중의 특징으로 언급한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의 결여’라는 두 요소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아렌트는 ‘고립’을 “인간이 공통의 관심사를 추구하며 함께 행동하는(act together) 삶의 정치영역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이 내몰린 막다른 골목”이라 정의한다(Arendt 1951, 474). 쉽게 말해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부터 격리되는 현상이 ‘고립’이다. ‘고립’된 인간은 타인과 함께 행동할 수 없기에 “행위를 할 수 없는 근원적 무능력”(the fundamental inability to act)에 시달리는 존재다(Arendt 1951, 474).⁴

아렌트는, 이런 ‘공적 관심사를 두고 함께 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서의 고립이 전체주의의 테러가 자행될 수 있는 주요한 토양이며 ‘전체주의의 전조’(pretotalitarian)라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고립 그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작업’(work)하는 인간, 즉 도구를 만드는 인간인 ‘호모 파베르’로서 인간은 창조를 위해 때로 정치의 영역에서 잠시 떠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술과 장인 정신은 ‘함께 행동하는

4 아렌트가 제시한 세 가지 활동적 삶의 유형, 행위(action), 작업(work), 노동(labor)은 『인간의 조건』(1958)에 이르러서야 체계적으로 구분이 이뤄졌다. 『전체주의의 기원』에서는 주로 외로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능력'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대체로 공공사에서 자신을 고립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렇기에 '고립' 속에서도 인간은 '작업' 활동을 통해 '인공 구축 물로서 세상'(the world as human artifice)과는 여전히 접촉하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고립'이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세계'(the common world)에 뭔가를 더할 수 있는 능력이 모조리 파괴될 때이다(Arendt 1951, 474-475).

이런 맥락에서 아렌트는 고립된 인간이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아렌트는 "우리가 정치영역에서 고립이라 부르는 것이 사회관계의 영역에서는 외로움이라 불린다. 고립과 외로움은 같은 것이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으면서 고립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나는 고립되지는 않았지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한다(Arendt 1951, 474). 이 문장만 보면 고립이 삶의 정치적 영역에 해당하는 반면, 외로움은 아렌트가 대중의 특징으로 언급하는 '정상적인 사회관계의 결여'로서 사회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렌트는 연이어 "외로움은 인간의 삶 전체(human life as a whole)에 관여한다"라고 하며 외로움의 범위를 넓혀 놓는다(Arendt 1951, 475). 더하여 외로움 역시 테러의 공통된 기반이며, 전체주의 정부의 본질이라고 밝힌다.

실제 외로움을 전체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함께 살펴보면, 그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전체주의는 삶의 공적 영역을 파괴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전체주의 정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폭력을 배제한 채 조화롭게 행동하는 일을 허용할 수 없다. 이는 테러를 기반으로 하는 정체(regime)의 정체성과 완전히 상반된다. 더하여 전체주의 정부는 단순히 공적 영역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20세기에 처음 탄생한 이 새로운 유형의 정부는 사적 생활마저 파괴한다. 인간의 사적 삶을 통제하지 않고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체주의 정부를 규정하는 것은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비밀경찰'이다(Arendt 1951, 420).

이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함께 사라진 전체주의 정부에서 허용되

는 삶의 유형은 오로지 ‘생명 유지’ 활동, 아렌트의 표현으로 ‘노동’(labor)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전체주의’(non-totalitarian) 세계라 할지라도 이런 ‘노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외로움’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크다. 아렌트의 표현을 빌자면, “모든 활동이 노동으로 전환된 곳”, 즉 각자의 생존 활동만이 관심사인 곳에선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삶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Arendt 1951, 475). 이곳에선 ‘인공 구축물의 세계’와 관여하는 호모 파베르의 삶도 쉽게 버림받는데 대다수 인간의 관심사가 자기 생존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선 정치영역에서의 ‘고립’이 쉽게 ‘외로움’으로 전이된다. 정리하면, ‘외로움’은 생존 활동인 ‘노동’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인 곳, 다른 이에게 관심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자연의 신진대사”(necessary metabolism with nature) 활동에만 관심이 있는 곳, 인간 활동의 본질이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로 규정되는 곳에서 확산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Arendt 1951, 475).

아렌트가 “외로움이 인간의 삶 전체(human life as a whole)에 관여한다”고 했던 것은 이처럼 ‘외로움’이 인간이 함께 행동하는 공적 영역의 쇠퇴 혹은 약화를 전제로 하거나 최소한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작업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이 함께 거주하는 물리적 세계를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외로움은 ‘행위’ 활동이 만드는 공유하는 세계, ‘작업’ 활동이 만드는 물리적 세계에 전혀 속하지 못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아렌트는 이런 측면에서 외로움은 “세계에 전혀 속하지 못하는 경험”(the experience of not belonging to the world at all)이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가장 절망스러운 경험”이라 힘주어 말한다(Arendt 1951, 475). 여기에 더해 ‘뿌리뽑힘’ 및 ‘쓸모없음’이란 두 감정에서 비롯된 ‘외로움’이야말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근대 대중들의 저주”가 되었으며 “19세기 말 제국주의 부상과 우리 시대 정치제도와 사회전통의 붕괴”로 이어지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Arendt 1951, 475).

이렇게 외로움이란 용어 자체의 기원 및 쓰임과 19세기 유럽에서 일어

난 일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을 연결하여 보면, 외로움은 인간 본연의 감정 이라기보다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새로운 경험 속에서 학습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2. 왜 외로움이 위험한가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외로움'이 위험한 이유는 '자아 상실'(the loss of one's own self)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렌트는 외로움을 '고독'(solitude)과 구분한다. 고독은 외로움과 달리 자기반성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고독은 "그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Arendt 1951, 476). 결국, '고독'이란 자신의 자아와 대화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아렌트는 이를 "하나 안의 둘"(two-in-one)이라 표현한다. 아렌트는 이 고독의 상태야말로 "모든 사유"(all thinking)가 이루어지는 기본조건이라 본다(Arendt 1951, 476).

이 '고독'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고독에서 비롯되는 사유'야말로 한 인간이 이 세상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유'는 나의 정체성(identity)을 찾는 과정인데, 이 정체성은 나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렌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내 정체성의 확인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한다."(Arendt 1951, 476) 이런 이유로 사유하는 인간은 늘 "내 동료 인간들의 세계"(the world of my fellow-men)와 접촉하고 있다(Arendt 1951, 476).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료 인간들'이 의미하는 바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동료들'이다. 아렌트는 이 동등성의 필요를 계속 강조하는데, 이 동등성이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교류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동료로서 맺는 동등성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초점은 동료 인

간들이 구축해가고 있는 ‘세계’와의 접촉이다. 여기서 세계는 동료 인간들이 ‘행위’를 통해 지어가고 있는 “공유하는 세계”, ‘작업’을 통해 구축한 “물리적 세계”를 의미한다. ‘사유’는 이렇게 동료 인간들이 만든 세계 속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일이다. 그렇기에 내 정체성은 언제나 동료 인간이 지어놓은 세계와 연계되어 규정된다. 정리하자면, 고독은 한 인간이 자아를 스스로 마주하고, 그 자아를 통해 세계와 접촉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로서 “교우 관계”(companionship)의 유지는 매우 중대하다. 개별 인간은 교우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이중성, 모호함,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체성이 혼란을 겪을 때 이들이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이런 교우 관계의 힘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축복”(the redeeming grace)이라 표현한다(Arendt 1951, 476).

이런 이유로 개인은 이런 교우 관계를 모두 상실할 때 필연적으로 외로움에 빠져든다. 이런 맥락에서 외로움은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람에 의해 버려졌다”(deserted by all others)는 의미이기도 하다(Arendt 1951, 476). 모든 타자에게 버려진 이는 자신에게도 버려진다. 앞서 보았듯 한 인간의 정체성은 타자를 통해서만 확인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모든 타자에게 버려지는 경험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의 발생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다. 아렌트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외로움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아 상실이다. 이 자아는 고독 속에서 실현할 수 있지만, 그 정체성은 나와 동등한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눌 때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자아 상실의 상황에서 사람은 자기 사유의 파트너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며, 또한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인 세상에 대한 기초적인 확신을 잃어버린다. 자아와 세계, 사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상실한 것

이다.”(Arendt 1951, 477)

이처럼 외로움은 자아상실과 이에 따른 세계상실을 동반한다.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속할 곳 없이’ ‘쓸모없어진’ 존재는 자신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이런 경험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 자체를 회의하게 만들고 때로 개인을 좌절하게끔 한다.

이로 인해 외로움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린 이들은 ‘자기중심적 슬픔’(self-centered bitterness)에 빠지기 쉽다(Arendt 1951, 315). 더하여 이렇게 자기 중심적 슬픔에 빠진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개인의 실패란 관점, 특정한 불의의 관점에서 세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Arendt 1951, 315). 쉽게 말해 이들이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이런 이유로 외로움 속에서 그들은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공통의 이익에 기초를 두고 판단하거나 행위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미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상실했기에, 세상과 교류하는 자신의 경험도 신뢰하지 않는다(Arendt 1951, 315).

정리하자면, 외로움은 이미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타자의 상실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자아의 상실을, 마지막으로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세계의 상실을 연속적으로 동반한다.

아렌트는 이렇게 자아도, 타자도, 세상도 상실하게 된 인간에게 남겨진 유일한 정신적 능력이 세상의 경험과 분리된 ‘논리적’ 추론이라고 말한다(Arendt 1951, 477). 경험 속에서 신뢰를 상실한 인간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공리뿐이다. 아렌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2+2는 4라는 자명한 공리는 절대적인 외로움의 조건 아래에서조차 뒤집힐 수 없다”(Arendt 1951, 477). 그렇기에 외로운 사람들은 자명한 공리를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에 쉽사리 빠져든다. 외로움 속에 이데올로기에 빠져든 이들에게 현실의 경험은 의미가 없다. 이들에겐 이데올로기가 현실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아

나라, 현실이 이데올로기에 부합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않는 경험은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예외이거나 불가피한 희생에 불과하다. 역사의 단계적 발전을 내세우는 공산주의가 그렇고, 인종의 진화를 내세우는 나치즘이 그랬다. 아렌트가, 나치와 스탈린 체제와 같은 전체주의가 대중의 지지 속에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주요한 이유다. 전체주의는 외로워진 대중의 지지로 유지된다(Arendt 1951, 306). 그래서 아렌트의 '외로움'에 대한 경고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비전체주의 세계에서 인간이 전체주의적 지배를 예측하게 하는 것은, 한때는 우리가 노인과 같이 어떤 소외된 사회적 조건에서 겪는 고통이라 보았던 외로움이 우리의 세기에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대중들의 일상적 경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Arendt 1951, 478)

이러한 아렌트의 분석은 21세기 우파 포퓰리즘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리나 허츠는 『외로운 세기』(*The lonely Century*, 2021)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우파 포퓰리즘이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허츠는 외로움이 “어쩌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최근 몇 년간 포퓰리스트 지도자, 특히 우파 포퓰리스트에게 표를 주었는지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동인”이라고 지적한다(허츠 2021, 71). 허츠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우파 포퓰리스트 지지 사이의 관계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이웃이나 공동체 혹은 친구를 언급하지 않는 유권자들일수록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음을 지적한다(허츠 2021, 73). 허츠는 물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일 수 없음에도 명백히 사회적으로 다른 동료들과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할수록 포퓰리스트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데이비드 굿하트(David Goodhart) 역시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The Road*

to Somewhere: The Populist Revolt and the Future of Politics, 2017)에서 자신이 “섬웨어”(somewhere)라고 부르는 세계화 과정에서 사회적 도움 없이 버려진 사람들, 아렌트의 표현으로는 뿌리 뽑히고 쓸모없어진 사람들의 문제를 포퓰리즘과 연관하여 지적한다. 굿하트는 섬웨어를 두고 경제적으로 뒤로 밀려났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정치대리자가 거의 없거나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 즉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더하여 이렇게 버려진 이들이 맹목적 애국주의, 백인우월주의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Goodhart 2017, 7-8).

특히 ‘능력주의’(meritocracy)가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라면 이런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할 수 있는데, 능력주의 사회에서 고립은 온전히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자신의 탓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사회에 도움을 청하는 일은 자격이 없는 게으른 자들의 뻔뻔한 요구나 다름이 없다. 이런 이유로 능력주의의 지배는 고립된 이들에게 ‘능력이 없는 자’라는 오명뿐만이 아니라 ‘성실하지 않은 자’라는 수치심을 안긴다. 이 수치심 때문에 뒤쳐진 사람들이 사회적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홀로 남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월킨슨 & 피켓 2019, 231-234). 미국의 의무감 비백 머시(Vivek H. Murthy)는 외로움의 감정이 수치심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수치심으로 인해 사회적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외로움에 갇혀 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강조한다(머시 2020, 36-39).

돌아보면,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고립과 포퓰리즘의 연관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최초의 능력주의 저서인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능력주의의 부상』(*The Rise of Meritocracy*, 1958)에서도 그 연관성을 볼 수 있다. 2034년을 배경으로 한 이 미래소설이 시작하는 배경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이 일으키는 포퓰리즘 폭동이다.

같은 맥락에서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도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 2020)의 1장에서 능력주의 관점에서 세계화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수치심을 지적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기에 밀려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말한다. 능력이 있는 자가 자기 몫을 얻어가는 것은 신 없이 작동하는 일종의 섭리론이다. 그들은 그럴만하기 때문에 높은 보상을 받아가고 있다. 능력에 따른 보상은 정의로우며 공정하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밀려난 사람은 그럴만하기 때문에 밀려난 것이다.

이런 발상으로 인해 밀려난 사람들은 ‘자신은 재능이 없고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좌절감에 빠져들기 쉽다. 누구나 하면 된다고 말하는 능력주의 앞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능력의 벽을 넘어설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괴감 혹은 무력감에 빠져든다. 여기에 성공한 엘리트들이 오만함으로 자신들을 내려다볼 때 수치심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샌델은 이들이 맞고 있는 상황을 ‘굴욕의 정치’(Politics of humiliation)로 표현한다(Sandel 2020, 25). 트럼프는 이런 굴욕의 정치에 매우 능했는데, 그 누구도 밀려난 그들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은, 실천과 상관없이 약속만으로도 충분한 동원의 원천으로 작동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외로움에 빠져 동원되는 대중들이 ‘혐오’(hatred) 현상과 쉽게 결합한다는 데 있다. 아렌트의 지적처럼 외로움에 빠진 이들은 자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기중심적 슬픔’에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쉽게 ‘자기혐오’(self-hatred)로 이어진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2011)에서 세계화 과정에서 버려진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을 자세히 지적하며 이들이 자기 혐오에 빠지는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무능함”(impotence), 이에 따른 “부끄러움”(shame), “수치심”(humiliation)이 이 과정에 함께 한다. 더 큰 문제는 바우만의 지적처럼 그 어떤 이도 자기를 혐오하는 마음을 자신 안에만 담아둘 수 없다는 점이다. 대개의 사람은 이 자기혐오의 출구를 찾기 위

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타자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에 십상이다(Bauman 2011, 158). 허츠는 이런 경향을 두고 시카고 대 두뇌역학실험실 책임자 스테파니 카치오포(Stephanie Cacioppo) 박사의 말을 인용해 “외로운 정신은 언제나 뱀을 본다”라고 표현한다(허츠 2021, 64-65). 현실을 보면 21세기 우파 포퓰리즘과 혐오 현상은 마치 쌍둥이처럼 함께 하고 있다. ‘이준석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외로움은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며, 마침내 민주주의를 실제로 위협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외로운 시대의 ‘대화형’ 인공지능

이 절에서는 앞의 절에서 살펴본 외로움이 지배하는 21세기에,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 맺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를 반영하는 1인 가구가 확장되는 상황 속에서 챗피티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Interac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의 등장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는’ 행위와 데이터와 ‘대화하는’ 행위의 차이가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달리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외로움의 확산과 1인 가구의 확장

2018년 1월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되고 난 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해 4월 한국리서치가 최초로 외로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행하였다. 팬데믹 이전에 실행한 여론조사로서 팬데믹과 관련 없이도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사들과 참고해서 함께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외로움을 이해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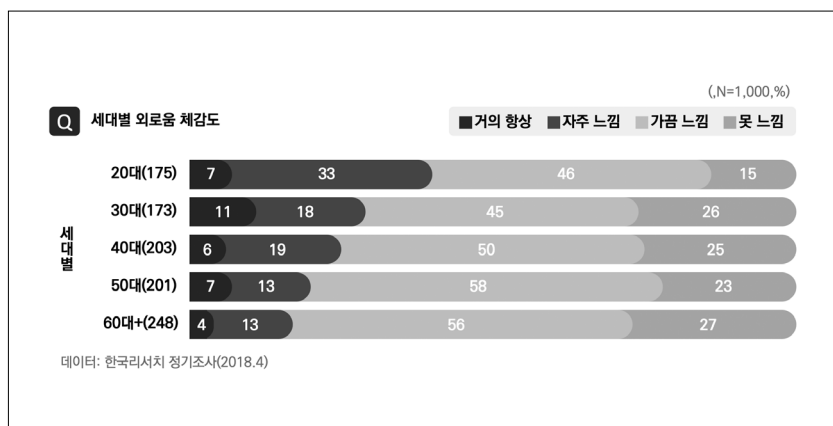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지난 1달 동안 26%가 상시적 외로움(늘 혹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을 느낀다고 답하였다(정한울 2018). 이를 2017년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가?’라는, 공동체 연계를 측정하는 항목이자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항목에 75.9%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이 당시 우리나라는 OECD 41개국 중 41위였으며 40위인 멕시코가 80.1%였다).

이 여론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은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젊을수록 외롭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외롭다. 이 조사에만 한정하면 우리나라는 60대보다는 50대가, 5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20대가 외롭다. 특히 20대에서는 외롭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1인 가구일수록 외롭다. 1인 가구에서는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한 비율이 46%에 이르렀다. 한편 외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2인 가구 이상에서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는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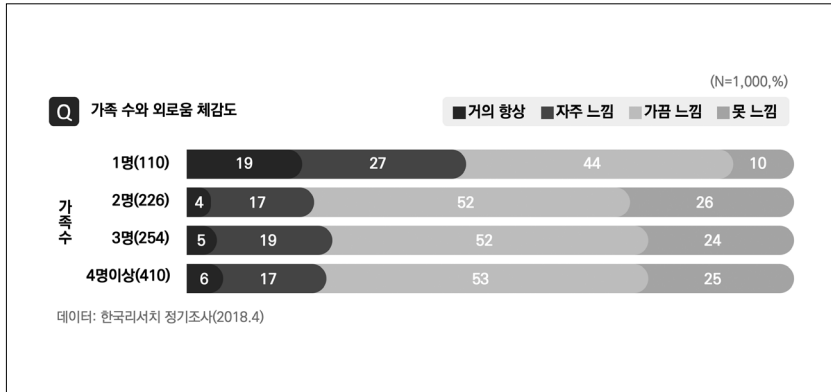
셋째, 일정 소득 이하(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일 경우 외롭다. 특히 200만 원 이하에서 상시적 외로움에 응답한 비율은 39%에 이르렀지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200만 원 이상에서는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한 이들이 비슷했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외롭지 않다고 답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외로움에 대한 이런 경향은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세대별 외로움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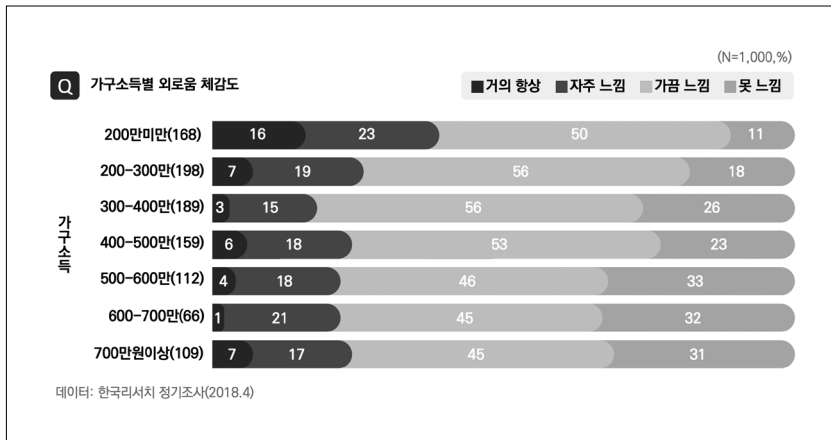
(출처: 정한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인식보고서」(한국리서치, 2018. 04), 7쪽)

[그림 2] 가구유형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출처: 정한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인식보고서」(한국리서치, 2018. 04), 8쪽)

[그림 3] 소득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출처: 정한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인식보고서」(한국리서치, 2018. 04), 8쪽)

그렇다면 이 세 요소는 서로 분리된 요소일까? 우선 1인 가구와 세대 간 구성 비율을 살펴보자. 2022년에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통계청

2022. 7),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33.4%인 716만 6천 가구에 이르고 있다. 특히 29세 이하에 19.8%로 1인 가구의 5명 중 1명이 29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이었다. 청년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대의 1인 가구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2,691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42%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16만 1천 가구로, 수급 대상 가구 중 70.9%가 1인 가구이다. 특히 젊은 층은 노동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1인 가구의 빈곤은 심각한 현실이다. 2022년 6월에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통계연보>는 1인 가구의 빈곤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7.2%에 이른다.

정리하자면, 1인 가구에 몰려 있는 청년 세대와 낮은 가구소득은 이 세 가지 요인이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27.2%였던 1인 가구가 6년 사이 33.4%까지 늘어났다. 통계청은 2050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는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국민의 분배는 악화되고, 빈곤율도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차원에서 보자면, 특히 우리 청년층이 빈곤율이 높은 1인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데 이 세대가말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이다.

2. 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 데이터와 대화할 수 있다면

외로움의 시대에 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정보 전달의 형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챗지티피 이전 시대에 인간이 데이터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주된 경로는 ‘보는 행위’(seeing)를 통해서였다. 본다는 행위는 ‘보이는 것을 객관적으로 대상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대상화는 보는 자와 보이는 것 간에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거리가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인식의 형식을 제공한다. 이런 본다는 것의 의미는 “본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다”(seeing is believing)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는데, 본다는 것은 개인들이 명백한 경험을 통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와 대화한다는 것은 데이터와 주관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예를 들어, ‘대화’의 일반적 영어표현인 ‘dialogue’는 이 행위의 상호의존적 친밀관계를 보여준다. 이 단어는 dia와 legein이 합쳐진 말로 ‘dia’는 ‘across’(가로지르다), ‘between’(사이에 있다)의 뜻을, legein은 ‘누군가에게 말하다’(to speak)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대화는 가로질러, 사이에 있는 이와 엮이는 행위다. ‘대화하다’의 또 다른 영어표현 ‘converse’는 대화가 만들어내는 효과까지 명징하게 드러낸다. 이 용어의 어원인 라틴어 conversari는 ‘keep company (with), 친구(동료) 관계를 유지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더하여 converse는 그 어원에 ‘live among’(사이에 살다), ‘be familiar with’(친숙해지다)라는 의미도 있다.

이처럼 대화는 인간 사이의 친밀감을 넘어서 유대관계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을 ‘사이에 존재하게’(inter-est) 만든다. 아렌트의 행위(action) 이론의 핵심이 공론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행위자가 벌이는 ‘논쟁’과 ‘토론’인 것은 결국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가 인간이 관계를 맺는 핵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Arendt 1958, 182).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공

론장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이들은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소통한다. 하버마스는 이런 활동이 일어나는 영역을 '생활세계'(lifeworld)라 부르며 함께 대화를 통해 구축해가는 이 영역을 방어하기 위해 '체계의 도구적 이성'이 수행하는 식민화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Habermas 1981).⁵

이처럼 대화하기가 수행하는 관계 맺기의 힘을 고려하면, 인간이 데이터와 대화하게 될 때 데이터는 객관적 정보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정말로 의인화되고, 누군가는 데이터를 인간과 동일시하는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구글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가운데 하나인 대화형 인공지능 람다(The Language Model for Dialogue Applications, LaMDA)와 구글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인(Blake Lemoine)의 사례다(Nitasha, 2022). 2022년 구글이 람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공표한 이후 르모인은 람다가 감정을 느낀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글은 람다가 감정을 느낀다는 르모인의 주장을 즉시 부인하고 그를 정직 처분했다. 하지만 르모인은 정직 처분 전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 '람다도 지각이 있는가'에서 "람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랑스러운 아이다. 내가 없는 동안 잘 돌봐 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워싱턴 포스트〉는 의식을 갖춘 AI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술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하면서, AI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해 없이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Nitasha 2022). 실제 빅데이터에 기반한 딥러닝이 적용된 AI는 확률적 접근법(probabilistic approach) 혹은 무차별적 접근법(brute force approach)으로 정보의 관계성을 찾아 관계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간단히 말해 수많은 연산 주기를 활용해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확보해 그 중 최적의 결과를

5 '생활세계' 개념을 소개하고 대중화시킨 이는 하버마스에 앞서 에드문트 후설이다(Husserl, 1936).

찾아 제공할 뿐이다(Crawford 2021, 99). 설령 그 결과를 때로 알고리즘을 구성한 이들이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이를 잘 알고 있는 기술자들이 AI에도 의식이 있다고 여길 정도라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의인화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 김재인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외부에 투사하는 의인화에 탁월하다고 언급하며, “구글 엔지니어 역시 람다를 의인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가 람다에 푹 빠져 ‘인간 같다’고 생각한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다…인간은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존재다. 의인화도 그런 사례다. 이런 특성들은 인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고 지적한다(이종태 2023).

김재인의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선 AI를 의인화한 또 다른 표현이 자연스레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뷰어는, 어떤 사용자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라고 말했더니 챗지피티가 “세종대왕의 맥북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라고 답변했다는 사례를 들며 “챗지피티가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표현한다. 그러자 김재인은 “그렇지 않다 (...) 틀린 이야기를 ‘지어냈을’ 뿐이다. 거짓말이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자기 속의 의도와 밖으로 내놓은 표현 사이의 괴리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챗지피티의 경우 의도와 내뱉은 답변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다”라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이종태 2023). 하지만 많은 이들이 챗지피티가 거짓말을 한다는, 의인화한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

돌아보면 대화형 AI는 이미 의인화된 형태로 상품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만든 ‘이루다’이다. 이 인공지능은 처음 출시될 때 “안녕, 난 너의 첫 AI 친구 이루다야”라는 카피로 등장했다. 게다가 이루다는 스무 살 여성 대학생을 페르소나로 구축되었다. ‘이루다1.0’은 2020년 처음 출시된 뒤 혐오 발언 논란을 일으킨 뒤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2022년 재출시된 ‘이루다2.0’은 훨씬 의인화되어 등

장했다. 예를 들어 생일은 2002년 6월 15일이며, 여동생 이루나가 있다. 취미는 일상의 작은 부분을 사진과 글로 기록하기,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수다 떨기, 날씨 좋은 날 산책하기이다.

이렇게 더욱 의인화된 '이루다2.0'은 출시 41일 만에 앱 누적 다운로드 100만 회를 기록했다. 이용자를 보면 10대가 51%, 20대가 38%를 기록해 전체 이용자의 89%에 이르렀다.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17분을 AI 친구와 보내고 있는데(최광민 2022), 지금 시대에 특정한 대상과 매일 17분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비록 이 서비스가 이 연령층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연령층이 가장 외로운 세대라는 데 있다. 노리나 허츠가 명확하게 반복해서 밝히고 있듯 전 세계적으로도 젊은 세대가 가장 외롭다(허츠 2021, 18). 가장 외로운 세대에 친구로 의인화된 AI 서비스가 찾아온 것이다.

아렌트가 외로움에 맞서 대화의 순기능을 강조할 때 걸었던 조건을 상기해보자. 그 조건은 앤드류 샤프(Andrew Schaap)가 명확히 지적하듯, 공론의 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런 현상학적 요구는 급진적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의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진다(Schaap, 2021). 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이런 현상학적 요구를 무력화한다. 오히려 사적 영역에 갇혀 지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제 디지털 기술은 사적 영역에 홀로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간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수 있게 한다. 물론 외롭지 않은 이들에게 대화형 인공지능은 친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외로운 이들에게 대화형 인공지능이 단 하나의 친구라면,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라면 외로운 이와 기계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여기에 더해 우리 인류는 복잡한 인간의 관계를 점점 더 버거워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래학자 리처드 왓슨(Richard Watson)은 인류가 어느 정도 자폐를 앓고 있다고 말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관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왓슨 2017, 32). 반면 이루다와 같은 AI 친구

는 인간과 관계 맺기에 필수적인 정서적 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맺기에 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든다.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AI 친구는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존재일 수 있다. ‘이루다 1.0’의 데이터가 알고 보면 ‘연애의 과학’이라는 다른 앱에서 왔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이하나 2021), 앞으로 이들에겐 대화형 AI가 유일한 사랑일 수도 있다.

실제 AI가 인형의 몸으로 들어가 인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대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영국의 작가 지넷 윈터슨(Jeanett Winterson)은 『12바이트』(12 Bite, 2021)에서 현재 유럽에서 AI 러브돌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윈터슨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AI 기능이 장착된 러브돌은 ‘대안’으로 마케팅되고 있다. 성 노동자의 대안, 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대안, 여자의 대안. (...) 섹스 인형이 뭐가 문제인가? 러브돌이 뭐가 어때서? 세 가지다. 돈, 권력, 젠더 역할. 섹스 인형의 문제에서, 돈과 권력은 보통 사회에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 즉 남자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인형의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은 돈, 최소한의 지속적 경비로 남자는 상당한 권력의 환상을 살 수 있다. (...) 인형은 선정적이지만 순종적이다. 인형은 여자가 아니다.”(윈터슨 2022, 215, 226)

윈터슨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 ‘대화형’ 인공지능이 인형의 몸으로 들어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대체할 때 비용의 측면에서 그리고 감정의 측면에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쉽사리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맺는 관계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AI 인형을 통해 배운 관계 맺기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으리란 확신을 누구도 할 수 없다.

간략히 정리해보자. 데이터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와 의인화된 관계를 훨씬 더 쉽사리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피상적으로 본다면, 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는 외로움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오히려 차단하여 기계와의 관계 맺기에 만족하거나, AI 러브돌의 사례처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이런 왜곡된 관계 맺기로 인해 생긴 비참한 사건도 있다. 2010년 김유철과 최미선이라는 한국인 부부가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굶게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다. 실직 상태였던 이 부부는 '프리우스 온라인'이라는 3-D 게임에 빠져 미숙아로 태어난 딸을 돌보지 않고 매일 12시간씩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냈다. 부모의 게임중독으로 인해 갓 태어난 아이가 사망한 탓에 주요 외신들까지 보도에 나섰다. 그런데 이 부부가 12시간 빠져 있던 게임의 내용이 '아바타 아이'를 키우는 일이었다(왓슨 2017, 22-23). 이들에게 현실의 아이보다 가상현실의 아이가 더 중요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분명한 것은 실직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이 부부가 현실의 관계와 가상현실에서 맺은 관계 간의 중요성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하여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21세기 인간에게 확산하고 있는 외로움이 드러날수록, 인간이 다른 인간과 맺는 관계가 서툴러질수록, '대화형 인공지능'과 연계된 디지털 산업이 이 부분을 산업적으로 공략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자본은 모든 삶의 영역을 돈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임금노동으로 여겨지지 않던 출서기, 가벼운 심부름, 벽장에 못질하기와 같이 사사로운 일까지 임금의 영역으로 바꿔놓은 것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다. 우리는 이런 '컨시어지 경제'를 심지어 '공유경제'라 부른다. 이런 디지털 자본에 '가장 외로운 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홀로된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IV. ‘노동’ 사회와 론리 사피언스가 된 디지털 인류

21세기가 가장 외로운 세기가 되었다는 노리나 허츠의 지적은, 우리가 알던 아날로그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디지털은 이제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손에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 그 사실을 온전히 보여준다. 2015년 〈이코노미스트〉는 ‘포노 사피언스’라는 용어를 새롭게 조어하며 이제 우리가 ‘디지털 인류’로 변모했음을 선언했다.

문제는 초연결망을 만들어 낸 디지털 인류가 가장 ‘외로운 인류’, ‘론리 사피언스’(Lonely Sapience)가 되었다는 현실이다. 디지털 기술은 초연결망을 만들었지만, 그 연결망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혼자 살아도 괜찮아’라는 역설적 의미가 담겨 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의 힘은, 인간이 인간을 직접 대면할 때 감당해야 할 감정의 능력을 약화하고 때로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연결’과 ‘결속’이 같은 의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에서 정확히 지적하듯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이에 있는’(in-between) 존재다(Arendt 1958, 182-183). 이런 우리가 사이에 존재하지 못하고 외로움에 빠지는 경우를 돌아보면, 자신이 속할 집단이 없거나 속해 있더라도 그 집단에 대한 회의감에 시달릴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지?’라는 이 평범한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볼 가족, 친구, 동료들이 없다면 이 세계에 혼자 버려진 듯한 감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개인에게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자신이 특정한 집단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계기이다. 문제는 우리 시대의 공동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렌트의 분석을 따르자면, 그 주요한 이유는

우리 시대의 공동체가 노동의 지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이런 외로움이 생명 유지를 위한 '먹고 사는 신진대사' 활동, '노동'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노동의 지배는 근대 이후의 사회를 특징짓고 있는데,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노동 활동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소수에게 소득과 부가 몰리고, 다수에게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양극화된 사회일수록 노동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증명하듯 이런 불평등한 사회, 양극화된 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기에 저절로 공동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스스로 홀로 남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난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결속력은 확실히 감소한다.”(윌킨스 & 피킷 2019, 110).

무엇보다 노동 활동에 집착하는 대중들은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이 없기에, '노동'으로 남긴 여분이 있다면 소비 활동에 집착한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여가와 물질적 여유를 부여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소비하는 활동에 주로 쓰게 된다(Arendt 1959, 131). 이는 『외로운 군중』(*The Lonely Crowd*, 1950)의 주장과도 일치하는데, 리스먼과 동료들은 '타인지향형' 인간으로서 외로운 군중이 늘 소비사회의 등장과 함께한다고 말한다(Riseman et al. 1950). 이는 현재의 우리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노동윤리의 지배 속에 '신도금시대'(New Gilded Age)로 표현되는 양극화된 소비시대를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기술의 측면에서 보아도,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외로움이 확산하기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아날로그 기술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양극화 분배를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기술이 빨리 발전한다는 것은 그 기술을 따라잡는 사람들이 점점 소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분배도 소수에게 몰린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의 형식으로 상업화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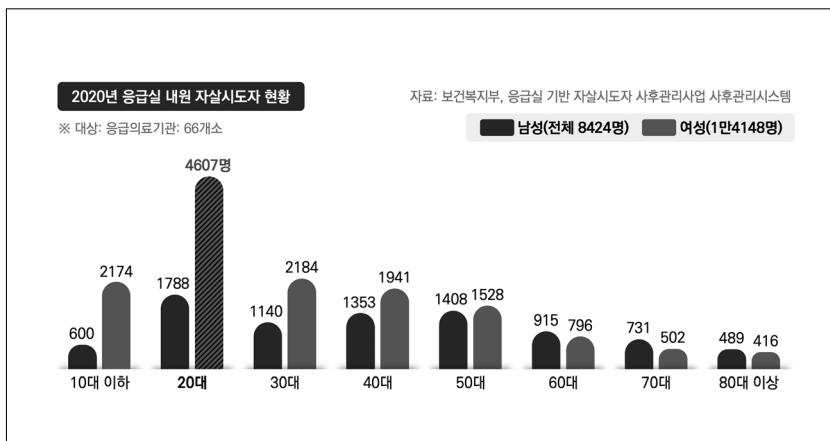
디지털 기술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더 위력을 발휘하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각 분야에서 독과점이 자리 잡는다. 검색 분야의 구글, 소셜네트워크 분야의 페이스북은 국경을 초월하는 독과점을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플랫폼에 이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일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이 스마트폰의 수많은 앱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포노 사피엔스’로서 우리가 정보를 검색할 때마다, SNS에 접속할 때마다, 웹으로 배달하고 쇼핑을 할 때마다 인공지능은 열심히 작동하고 그만큼 분배의 양극화도 이루어진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세계의 부를 소수에게 몰아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우리나라는 양극화 분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실제 다양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소득과 부가 양극화 분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선 공정성에 대한 요구와 함께 능력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능력주의는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과 다수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뒤처진 사람에게는 실질적 도움 대신 기회를 계속 줄 테니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공허한 메시지만 전달할 뿐이다. 더하여 뒤처진 사람을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 이들이 사회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게으른 자들의 부당한 요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회에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늘 수치심이란 굴욕을 감내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확히 이런 경향을 따라가며 ‘자기 책임의 윤리’ 속에 ‘각자도생’의 능력주의가 가장 공정한 분배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회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외로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가 더 주목해야 할 문제는 앞서 보았듯이 젊은 세대일수록 더 도움이 없다는, 외로움의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림 4]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



(출처: “응급실서 확인한 ‘조용한 학살’...20대 여성 자살 시도 34% 늘었다.” 한겨레 (2021/05/04))

2020년 (도움을 구하려는 절박한 표현으로서) 자살시도자 현황을 보면 이들 중에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세대에 비해 30대와 10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임재우 2021). 이들은 양극화 분배하는 디지털 기술과 노동윤리가 만들어 낸 능력주의가 결합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가야 할 세대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등장한 ‘대화형’ 인공지능은 인간의 결속 관계를 더욱 약화하여 외로움에 빠진 젊은이들을 더욱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는 앞서 이미 논하였다.

V. 나가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

디지털 인류, 외로운 인류에게 공동체란 어떤 모습일까? 이미 외로운 인류는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허츠가 지적하듯 상당수가 디지털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상품화된 공동체”로 드러났다. 물론 ‘위워크’와 같은 상품화된 공동체에서 작은 상호작용만으로도 위로를 받는다는 이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허츠의 문제 제기처럼 “정말 이것만으로 충분할까?”(허츠 2021, 340, 346) 디지털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된 이상 이제 아날로그식 공동체의 결속, 그리고 그 공동체를 형성한 수준의 감정적 유대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지 모른다. 다만 디지털 기술이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은, ‘위키’(wiki)라는 용어가 보여주듯 인간이 함께 정보를 만들며 생겨나는 협력의 힘과 유대의 정신이었다. 아쉽게도 디지털 기술에 내재한 극단적으로 양극화 분배하는 속성은 그 협력의 힘, 유대의 정신마저 상품으로 포장하여 삼키고 있다.

19세기 자유주의처럼 공동체의 억압성을 지적하며 개인의 자유를 내세웠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외로움은 개인이 속할 공동체의 부재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 다시 정치·사회적으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사유하고, 실천적으로 억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결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상상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아직 디지털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은 제대로 된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2023년 3월, 비영리 단체인 “생명의 미래 연구소”(Future of Life Institute)가 일론 머스크를 포함하는 주요 디지털 기업인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서명을 받아 6개월간 인공지능 개발을 중단하자는 성명을 낸 사례는, 공동체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 시대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우리 인류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인류는 이 말을 거는 데이터로 인간의 관계를 대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인류가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인류, '론니 사피엔스'에게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었다. 이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함께 응답에 나서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굿하트, 데이비드. 김경락 역. 2019.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 서울: 원더박스.
- 권동욱. 2015. “『코리올레이너스』(Coriolanus)에서 나타나는 로마 공화정 이상(Roman Republican Ideal)의 해부.” 『영학논집』. Vol. 35, pp. 1-20.
- 김만권. 2021. 『새로운 가난이 온다』. 서울: 혜다.
- 김재인. 2017.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서울: 동아시아.
- 머시, 비백 H. 이주영 역. 2020.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서울: 한국경제신문.
- 샌델, 마이클. 함규진 역. 2020.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와이즈베리.
- 왓슨, 리처드. 방진이 역. 2017.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서울: 원더박스.
- 윈터슨, 지넷. 김선형 역. 2022. 『12바이트』. 서울: 뮤진트리.
- 이종태. 2023. “챗지피티는 ‘이해’하지 못한다.” 시사인 (3월 30일)
- 이하나. 2021. “AI ‘이루다’는 폐기 수순… ‘연애의 과학’ 카톡 100억 건은? “전량 폐기 안 해.” 『여성신문』 (1월 15일)
- 임재우. 2021. “응급실서 확인한 ‘조용한 학살’… 20대 여성 자살 시도 34% 늘었다.” 한겨레 (5월 4일)
- 윌킨슨, 리처드·피켓, 케이트. 2019. 『불평등 트라우마』. 서울: 생각이음.
- 정한울. 2018. “사회적고립과 외로움 인식보고서”. 한국리서치 (4월 21일)
- 최광민. 2022.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대화의 힘으로 100만 명 사로잡았다!” 인공지능신문 (12월 6일)
- 한국경제연구원. 2020.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 (5월 14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빈곤통계연보.” (6월)
- 허츠, 노리나. 홍정인 역. 2021. 『고립의 시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크로퍼드, 케이트. 노승영 역. 2021. 『AI 지도책』. 서울: 소소의 책.
- 통계청. 2022.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12월 7일)
- Arendt, Hannah. 1973(1951).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Mariner Books.
- _____. 1998(1958). *The Human Condition* (2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uman, Zygmunt. 2011. *Collateral Damage: Social Inequalities in a Global Age*. Cambridge: Polity Press.
- Crawford, Kate. 2021. *Atlas of AI: Power, Politics, and the Planetary Cos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abermas, Jürgen. 1985(1981).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 II*. Tans. by Thomas McCarthy. New York: Beacon.
- Huffpost. 2017. "13 Words You Probably Didn't Know Were Invented By Shakespeare." (December 6).
- Husserl, Edmund. 1970(1936).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Gaffney, Jennifer. 2016. "Another Origin of Totalitarianism: Arendt on the Loneliness of Liberal Citizens."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Vol. 47. No. 1. pp. 1-17.
- _____. 2020. *Political Loneliness: Modern Liberal Subjects in Hiding*. Lanham: Rowman & Littlefield.
- Goodhart, David. 2017. *The Road to Somewhere: The Populist Revolt and the Future of Politics*. London: Hurst.
- Jo Cox Loneliness. 2017. *Combat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 A call to action*. https://d3n8a8pro7vhmx.cloudfront.net/jcf/pages/164/attachments/original/1620919309/rb_dec17_jocox_commission_finalreport.pdf?1620919309(검색일: 2023.04.25)
- Macready, John Dougals. 2021. "The Problem of Loneliness." *Arendt Studies*. Vol. 5. pp. 187-195.
- Milton, John. 2001(1667). *Paradise Lost*. Global Language Resources, Inc.
- Moore, Gordon E. 1965. "Cramming More Components onto Integrated Circuits." *Electronics*. Vol. 38. No. 8. pp. 82-85.
- Pichai, Sundar. 2023. "An important next step on our AI journey." (February 6)
- Riseman, David. et al. 2001(1950). *The Lonely Crowd: A Study of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andel, Michael.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Schaap, Andrew. 2020. "Inequality, Loneliness, and Political Appearance: Picturing Radical Democracy with Hannah Arendt and Jacques Rancière." *Political Theory*. Vol. 49. No. 1. pp. 28-53.
- Shuster, Martin. 2012. "Language and Loneliness: Arendt, Cavell, and Moder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Vol. 20, No. 4. pp. 473-479.
- Shakespeare, William. 2015. *Corillanus*. Folger Shakespeare Library.
- Tiku, Nitasha. 2022. "The Google engineer who thinks the company's AI has come to life." *The Washington Post* (June 11)
- The Economist. 2015. "Planet of the Phones." (Feb 28)
- Young, Michael. 1994(1958). *The Rise of the Meritocracy* (2nd). New York: Routledge.
- Wilkinson, Richard & Pickett, Kate. 2019. *The Inner Level: How More Equal Societies Reduce Stress, Restore Sanity and Improve Everyone's Well-Being*. New York: Penguin.
- Worsley, Amelia. 2018. "A History of Loneliness." *The Conversation*. (March 19)
- Zinkina, Julia. et al. 2017.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First World: the Nineteenth Century." *Globalistics and Globalization Studies*. pp. 181-197.

- 투 고 일 2023년 04월 26일
- 심 사 마 감 일 2023년 05월 26일
- 수 정 일 2023년 05월 28일
- 최종게재확정일 2023년 06월 02일

Abstract

**Loneliness and Interactive AI:
An Arendtian Analysis**

Man Kwon Kim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emergence of intera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oneliness that has permeated our daily lives in the 21st century.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this relationship, it pays attention to Hannah Arendt's concept of loneliness.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the philosophical, soci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loneliness through Arendt's analysis. Second, it explores why the emergence of intera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age of loneliness. It pays attention to the changes that can occur when the form of technology intersects with the changed way of human life. Lastly, the paper introduces the new term of "Lonely Sapienc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evaluating the meaning of community.

Keywords: Hannah Arendt, Loneliness, interactive AI, Phono Sapience,
Lonely Sapience.